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 인지와 보험료 지출*

Perception of Financial Risk and Expenditures for Insurance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부교수 김경자**

Dept. of Housing and Consumer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 : Kim, Kyung-j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financial risks and expenditures for insurance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from 598 housewives by online survey on Dec., 2001.

Results indicated that respondents had perceived the risk of unemployment most among three types of risks. Household characteristics reflecting financial needs in emergency cas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risks, and hence the expenditures for insurance,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emergency preparation had negative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risks and the expenditures for insurance. However, only credit-related risk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expenditures for insurance.

▲ 주요어(key words) : 가계 재무위험(financial risk of household), 생명보험(life insurance)

1. 서론

우리나라 가계는 지난 몇 년간 경제적 불황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재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환경이 어려워지면 가계는 미래의 경제상태에 대해 더 높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험구입은 가계경제와 관련된 불안함을 감소시키거나 타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위험관리의 대표적인 대안이다(안승철 외, 2002). 일반적으로 가계 재무상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가계와 관련이 깊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판매가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997년과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가입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생명보험협회, 2002).

생명보험협회(2001)의 2000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86%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당 가입건수는 평균 3.6건이며 가계당 평균 보험료 지출은 연간 269만으로 월평균 25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입율은 생명보험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의 가입율 90% 선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성민 외, 1999). 또한 가계특성별로 보험 가입상태를 분석해보면 소득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에서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보험 가입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보험이 미래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경제적 대비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보험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대비책의 일종이므로 미래소득의 감소나 인적자본의 가치절하를 예상하는 가계가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지출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러한 예측과 다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하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 김경자 (E-mail : kimkj@catholic.ac.kr)

나는 우리나라 보험가입자들의 가입목적은 보험본래의 순수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저축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은 순수보장형보다 저축성과 보장성의 성격이 결합된 상품이 많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연금과 결합된 형태로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이런 설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생명보험 가입동기가 만일의 경우에 대한 보장보다는 노후대비나 자녀교육 자금 마련인 경우가 많다(김성민 외, 1999).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저축의 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재무위험 지표가 같아도 가계의 재무위험에 대한 인지수준이나 위험회피성향이 사람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실제로 실직이나 사망 등 가계의 재무위험이 높은 사람보다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가계위험을 더 높게 인지하고 따라서 그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김경자, 2002). 또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비상시 잃어버릴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 정홍주(1996)는 남자보다 여자가, 젊은 층보다 노인층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위험회피성향이 크다고 하였다. 소득수준과 위험회피성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으나 국가별 비교에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생명보험 수요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가진 것을 잃을 위험에 민감하고 따라서 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보험가입이 가계의 위험관리를 위한 주요 영역이고 보험료 지출이 실제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계의 보험가입 행동이나 보험료 지출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이회춘(2003)이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의 보험상품은 주로 대리점이나 모집인의 제언에 기초하여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나 가계 위험관리 교육을 위해서나 보험소비자의 성향파악은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여러 특성에 따라 가계가 인지하는 재무위험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위험관리의 대표적 수단이라 할 보험을 구매하기 위해 가계가 실제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가를 실제자료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가계특성과 가계위험, 그리고 보험구매행동의 관계가 파악되면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요령을 교육하고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있고, 보험사에는 가계수요를 더 잘 반영한 보험상품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문헌고찰

1. 위험관리와 보험

위험(risk)이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 또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가계위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재무위험을 말하고 재무위험이란 경제적 손실의 발생 기회, 또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arman & Forgue, 1996, p.328). 대부분의 가계에서 재무위험은 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궁극적인 복지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계는 가계 안팎에서 부딪치는 위험을 과학적, 합리적, 경제적 방법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가계 위험관리란 가계의 목표나 목적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순수위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김성민(1998)은 가계가 위험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객관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고, 둘째, 그 위험의 종류와 증대성을 가계관리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셋째, 위험을 회피하려는 요구가 생기고 넷째, 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실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정홍주(1996)도 위험관리의 순서를 첫째,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 둘째, 각 위험의 상대적 빈도와 크기를 파악할 것, 셋째, 가계관리자의 위험관리 능력을 파악할 것, 넷째, 위험관리 행동을 실행할 것의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가계가 부딪치는 객관적 재무위험의 유형은 다양하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양민애, 1994). 하나는 가계 구성원의 인적자본 상실 또는 가치하락과 관련된 것으로 소득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상실이다. 이는 주로 가계 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장애발생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발생의 경우 소득의 상실과 아울러 치료를 위한 의료비의 필요라는 추가적인 재무수요가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재산가치 상실 또는 하락과 관련된 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산을 상실하거나 자산가치가 감소되는 위험이다. 특히 은퇴 후 장기간 연금생활을 하는 노인기 가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감소는 소득의 감소와 동일한 재무위험을 발생시킨다. 마지막 하나는 배상 또는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이다. 이는 타인에게 신체적인 위해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인데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가계가 부딪치는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는 각기 다르다. 또한 사람마다 동일한 위험을 인식하더라도 그 위험을 회피해야 할 위험으로 보는가 또는 극복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보는가도 다르다. 위험에 대한 인식 또는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흔히 위험회피/수용 성향으로 불리는데 이 성향은 개인마다 다르다. 많은 연구들이 위험회피 또는 수용성향이 성별, 연령, 학력, 재산, 출생순서, 직업, 결혼상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홍주, 1996). 그 결과들은 서로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가, 젊은 층보다 노인층이, 첫째 자녀가 두 번째 이하로 태어난 자녀보다,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홍주, 1996; Cordell, 1996; Grable & Lytton, 1998).

한편 Bajtelsmit과 Bernasek(1996)은 남자와 여자의 위험회피성향의 차이를 소득과 자산규모 그리고 고용안전성과 같은 경제적 측면, 그리고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화의 영향 등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위험수용성(risk tolerance)과 관련이 있는 여러 요소를 규명하려 한 Sung과 Hanna(1996)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 외에 가구주의 인종, 은퇴까지의 기간 등도 위험수용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가구주가 백인이 아닌 경우보다 백인인 경우, 그리고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위험수용성향이 높았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미혼보다는 기혼자인 경우 위험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위험을 인식한 후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위험회피와 위험보유, 손실통제, 위험이전, 위험감소로 크게 나눌 수 있다(Garman & Fogue, 1996, pp.330-332). 위험회피란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위험을 초래할 물건을 아예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자동차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한 예이다. 위험회피는 위험발생 확률을 거의 0으로 낮추어줄 수 있으나 '노화'의 경우처럼 위험회피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위험보유란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가능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대개 위험발생시 예상되는 손실의 크기가 작거나 가계가 유사시의 손실을 보전할 대비책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취하게 되는 방법이다. 손실통제란 손실발생의 가능성이나 손실의 크기를 감소시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거나 도난방지용 자물쇠를 설치하는 것이 그 예이다. 반면 위험이전과 위험감소는 위험을 타인에게 완전히 이전시키거나 위험을 가계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말한다.

보험은 대표적인 위험이전 또는 위험감소 방식에 속한다. 가계는 작지만 확실한(certain) 비용(보험료)을 지불하고 불확실하지만(uncertain) 유사시 액수가 손실을 보상(보험금)받기로 하고 위험을 보험회사에 이전하거나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이 방법은 개인주의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유용성이 크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렇지만 모든 위험이 보험으로 이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순수위험이 아닌 투자위험이나 포변적이지 않은 특별한, 개인적 위험은 위험이전이나 위험감소의 방식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가계가 부딪치는 위험의 종류가 가계마다 다르듯이 가계가 택하는 위험관리 방안도 가계마다 다르다. 가계에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계별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유사시 손실의 정도,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 정도, 위험관리에 드는 비용, 가계의 위험관리 능력, 그리고 위험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또는 위험회피/수용성향) 등을 평가해보아야 한다(Garman & Fogue, 1996, p. 330). 따라서 가계위험관리 방안으로서의 보험가입 행동은 크게 가계가 인식한 위험수준과 위험발생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경제적 준비상태 및 위험수용 능력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가계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관리 방법을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유사시 손실의 크기가 클수록, 경제적 준비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위험회피성향이 강할수록 보험가입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생명보험의 경우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손실의 크기는 자녀수가 많거나 자녀가 어릴수록 그리고 가족생애주기상 자녀출산기나 양육기에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사시 손실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정도는 자산(주택 포함)이 많거나 현재 취업자가 많은 경우 또는 유사시 취업이 가능한 인적자본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높아진다. 따라서 유동자산의 크기뿐만 아니라 자가 보유 여부, 맞벌이 여부, 가계구성원들의 교육수준 등으로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Xiao(1996)는 보험자산을 비롯한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생애주기와 가계소득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는데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그리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명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그리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수용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Xiao의 연구에서 실제 생명보험 가입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위험의 발생 가능성, 위험발생시 손실의 크기, 위험 대비 능력 등의 요소가 통제되지 않은 채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 가입실태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선택 행동에 대해서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손해보험사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거시적 통계자료만이 발표되고 있고 가계특성별 보험가입실태나 보험료 지출실태에 대한 자료는 전혀 가용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 분야인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한국생명보험협회가 3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생명보험성향조사(2000)에서 개별 가계의 보험료 지출실태와 생명보험 가입율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생명보험성향조사는 전국의 2000가구를 대상으로 생명보험 가입실태와 가입동기, 가입전망 등을 측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생명보험 가입율은 민영생명보험과 농수축협 생명공제, 그리고 우체국 보험을 모두 포함할 때 86.2%이고 민영생명보험만을 고려하면 81.9%이다. 민영생명보험은 1997년의 가입율 73.7%에서 12.5%가 더 증가한 수치이다. 민영생명보험에 가입한 1,637가구의 생명보험 평균 가입건수는 3.6건이었고 연간 평균납입보험료는 29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25만원 정

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한편 연간납입보험료가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1.6%였다.

<표 1> 보험가입건수, 연간 납입보험료, 납입보험료 비율

보험가입 건수	비율 (%)	연간납입보험료	비율 (%)	보험료/연소득	비율 (%)
1건	13.6	50만원 미만	7.2	2% 미만	5.6
2건	20.3	50-100만원 미만	14.4	2-4% 미만	13.4
3건	16.8	100-150만원 미만	15.7	4-6% 미만	15.0
4건	14.8	150-200만원 미만	10.4	6-8% 미만	12.1
5건	12.6	200-250만원 미만	13.1	8-10% 미만	9.1
6건 이상	22.2	250-300만원 미만	5.3	10-15% 미만	18.9
		300만원 이상	34.0	15-20% 미만	8.6
평균 3.6건		평균 296만원		20% 이상	17.0
			평균 11.6%		

생명보험협회(2000), 생명보험성향조사

보험종류별로 개인보험 보유계약 건수를 보면 보장성 보험 가입이 2,890만 건으로 전체 4,901만 건의 5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보험 순이다<표 1>. 질병보험은 전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1997년과 비교해 볼 때 가입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18.1%를 차지하는 상해보험은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저축성 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은 보유계약 건수가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각종 사고나 질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장욕구는 증가한 반면 저축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에 대한 소비자 욕구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생명보험성향조사(2000)에 나타난 가계특성별 민영생명보험 가입율을 보면 가계소득과 가구주 학력수준, 가구주 연령, 자녀유무 등에 따라 생명보험 가입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명보험 가입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해당 계층 가계의 8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가구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입율이 높아지고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입율도 높아지다가 그 이후 다시 가입율이 낮아진다. 한편 자가를 소유하는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생명보험 가입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자녀가 있는 가계는 자녀가 없는 가계에 비해 생명보험 가입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성향조사에 나타난 가계의 보험가입행동은 우리나라 가계가 느끼는 위험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또 가계가 인지하는 위험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계가 느끼는 위험이 가구주 사망시 유족의 생활보장에 대한 불안에서 유사시의 질병치료나 사고수습, 실업이나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성향조사에 응답한 소비자들의 40% 가량이 생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느끼는 생활불안의 내용은 '건강과 물가에 대한 불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안,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육아 및 교육비용 조달에 대한 불안, 고용에 대한 불안' 등이었다. 가입목적은 살펴봐도 '사고나 질병 시 본인의 의료비 보장(71.4%)'이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의 생활보장(51.4%)', '재해나 교통사고시 일시적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43.0%)' 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다. 또한 보험트렌드의 변화추이에 대해 연구한 정중영(2003)도 현대의 3대 보험 타겟 시장으로 건강보험 시장, 실버 연금시장, 그리고 종합금융서비스 시장을 꼽고 있다.

고양곤(2003)은 가계가 느끼는 위험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의 보장범위가 사망시의 생활보장에서 노후와 의료보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이 생활보험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비자들도 종래의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보험구매 패턴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보험을 구매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출이 가계의 계획적 경상지출로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좀 더 체계적인 가계위험관리를 시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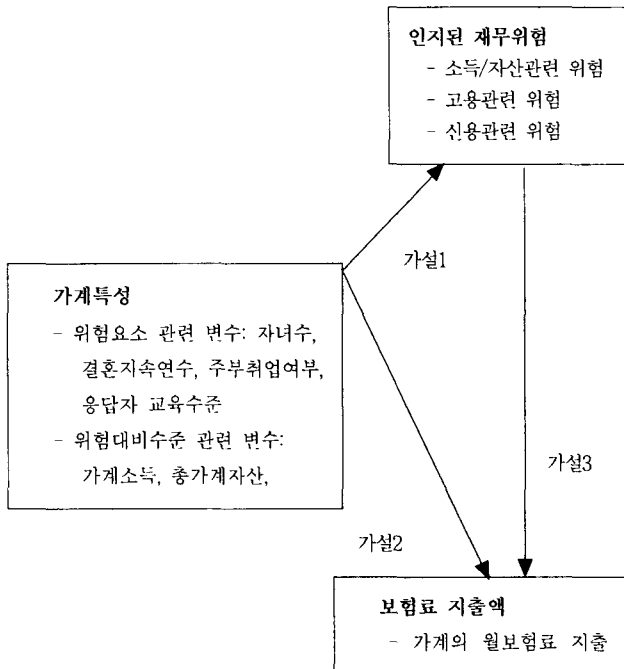
가계의 생명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생명보험협회의 자료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활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보험가입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가계특성별로 보험가입실태를 비교해 놓은 자료라서 가계특성과 보험가입 또는 보험료 지출과의 인과적 관계해석에 그 조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계의 보험가입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인구학적 측면을 고려한 가계특성과 가계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위험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가계특성에 따라 가계구성원이 느끼는 재무위험 수준이 다른지, 그리고 가계특성과 재무위험 인지수준에 따라 가계의 보험가입행동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Garman과 Fogue(1994, p. 330). 정홍주(1996; pp. 37-39), 김성민(1998; p. 249) 등이 주장한 바를 요약하면 가계의 위험관리 행동은 1) 가계별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2) 위험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 정도 (또는 가계의 위험관리 능력), 3)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 4) 위험회피 또는 위험수용성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특성을 위험요소의 발생가능성 및 위험의 크기와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의 능력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나누고 각각의 가계특성에 따라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보험가입 행동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인

지된 재무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가입 행동이 달라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위 연구모형에 따라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 가설 1-1. 가계 위험요소가 클수록 주부가 인지한 재무위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연수가 짧을수록,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맞벌이 가계보다 비맞벌이 가계의 주부가 인지한 재무위험 수준이 높을 것이다.
- ▷ 가설 1-2. 가계의 위험대비수준이 높을수록 주부가 인지한 재무위험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총가계자산이 많을수록 주부가 인지한 재무위험수준이 낮을 것이다.
- ▷ 가설 2-1. 가계 위험요소가 클수록 가계의 보험료 지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연수가 짧을수록,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맞벌이 가계보다 비맞벌이 가계가 보험료 지출액이 많을 것이다.
- ▷ 가설 2-2. 가계의 위험대비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의 보험료 지출액이 감소할 것이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총가계자산이 많을수록 가계의 보험료 지출액이 감소할 것이다.
- ▷ 가설 3-1. 주부가 인지한 재무위험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의

보험료 지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소득/자산관련 위험, 실업관련 위험 및 신용관련 위험이 높은 가계일수록 보험료 지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가계가 인지하는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 변수는 가계에 발생할 위험요소를 나타내는 변수와 위험에 대한 대비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나누었다. 위험요소 관련변수는 가계가 느끼는 객관적 위험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수, 주부의 취업여부(취업=1, 비취업=0), 응답자의 교육수준(단위: 年),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결혼지속연수를 선택하였다. 위험요소가 크다는 의미는 유사시에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많고 또 절실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녀수가 많고 결혼지속연수가 짧을수록,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주부보다는 비취업주부가 느끼는 위험수준이 더 높고 따라서 보험료 지출액이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녀수가 많고 자녀가 어릴수록 유사시 필요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비취업주부의 경우 취업주부에 비해 소득과 취업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다.

가계의 위험대비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현재의 월평균 가계소득(단위: 만원)과 총가계자산(단위: 만원)을 선정하였다. 총가계자산은 자가인 경우 시가, 전월세인 경우 보증금에 은행예금, 주식과 채권의 시가, 그리고 기타 자산을 합쳐서 측정하였다. 소득이 높은 가계나 자산이 많은 가계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과는 별도의 경제적인 준비해 놓았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계소득과 총가계자산은 응답자의 재무위험 인지 및 보험료 지출액과 부적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계 재무위험은 양민애(1994)가 지적한 세 가지 위험(소득 상실 위험, 재산가치 하락 위험, 배상책임위험)과 생명보험협회 조사응답자들이 느끼는 생활불안(건강과 물가에 대한 불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안,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육아 및 교육비용 조달에 대한 불안, 실업에 대한 불안)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소득 및 자산관련 위험', '고용관련 위험', 그리고 '신용관련 위험'의 세 가지로 재구성하였다. 소득 및 자산관련된 위험은 '소득의 양 및 소득유입시기의 규칙성'과 '지금까지 축적한 저축이 충분한지'로, 고용관련 위험은 '가장이 정년퇴직 전에 실직할 위험이 있는지' 또 '가장이 실직하면 대신 취업할 사람이 있는지'로, 신용관련 위험은 '유사시 금융기관이나 친척 또는 친구에게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릴 수 있는지'로 각각 측정하였다.

세 유형의 인지된 재무위험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정말 그렇다)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재무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보험료 지출액은 강제보험이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료와 자동차가 있는 경우 가입이 거의 강제적인 자동차보험료를 제외

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지출하는 월평균 보험료 지출액(단위: 천원)으로만 측정하였다. 보험은 위험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위험관리방안의 하나이므로 재무위험을 크게 인지할수록 보험료 지출액은 증가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여성 포털사이트 아줌마닷컴(www.azoomma.com)의 회원주부들을 대상으로 2001년 9월에 8일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금융 및 보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일상적인 소비지출에 대한 의사결정과 달리 주부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으나 외국의 한 연구(Fitzsimmons, 1989)에 의하면 주부들이 보험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부가 주도적으로 보험가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29%, 남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26%,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45%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는 가계의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은 대개 주부인 경우가 많고 주부가 재무문제에서 주된 의사결정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출자체를 집행하는 주체는 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계 재무위험과 가계특성, 그리고 보험료 지출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부 응답자는 총 616명이었으나 응답자료가 타당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598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가계특성과 주부가 인지한 재무위험 수준은 기술통계를, 가계특성과 재무위험, 보험료 지출과의 관계분석을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가계의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 53.7%를 차지했고 1명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29.9%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9.6%, 전문대졸이 20.7%, 고졸이 38.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결혼지속연수는 8.2년이었고 평균 연령은 32.4세였다. 주부가 취업하고 있는 맞벌이 가계는 23.9%였다. 조사대상 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35.4만원으로 2001년 도시가계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 265만 5천 원보다 다소 낮았는데 이는 인터넷 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소득이 낮은 20대 후반에서 30대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가계의 총가계자산은 평균 1억 354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n=598)

변수	n(%)		n(%)		
자녀수	없음	69(11.5)	응답자교육수준	중졸이하	5(0.8)
	1명	179(29.9)		고졸	232(38.8)
	2명	321(53.7)		전문대졸	124(20.7)
	3명 이상	29(4.8)		대졸이상	237(39.6)
결혼연수	10년 미만	409(68.4)	주부취업유무	취업	143(23.9)
	10년 이상-20년 미만	143(24.0)		비취업	455(76.1)
	20년 이상	46(7.6)			
월평균소득	130만원 미만	161(26.9)	총가계자산	5000원 미만	150(26.0)
	130만-230만원 미만	225(37.6)		5000만원-1억원미만	191(33.0)
	230-350만원 미만	152(25.4)		1억-2억원 만	173(29.9)
	350만원 이상	59(9.9)		2억원 이상	64(11.1)

*: 가계자산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578명임.

한편 응답자의 94.6%가 자동차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제외한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대답하였다. 가입한 보험의 종류는 조사 항목이 아니었으나 일반적으로 가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생명보험 외에 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 장기저축성 보험, 그리고 화재보험 정도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의 보험 가입을 94.6%는 이는 생명보험협회 조사의 2000년 생명보험 가입을 86%보다 거의 10% 가량 높은 수치이다. 본 조사는 생명보험협회 조사보다 1년 이후의 자료인데다 생명보험 외에 화재보험이나 기타 특종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값이어서 이러한 차이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보험이나 월평균 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용은 23만 6천 원으로 생명보험협회의 조사(2001)에서 나온 월 25만원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며 소득대비 보험료 지출액도 11.2%로 생명보험협회의 조사에서 나온 평균값 11.6%와 거의 비슷하였다.

2. 주부가 인지한 가계재무위험 수준

가계가 인지한 재무위험을 소득/자산관련 위험, 고용관련 위험, 신용관련 위험으로 나누었을 때 응답자인 주부들은 고용관련 위험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신용관련 위험, 소득/자산관련 위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표3>을 보면 정년 퇴직 전에 가구주가 실직한 위험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그런 편이다'에 거의 가까운 3.91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장이 실직할 경우 대신 취업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며 만일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저축도 비교적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소득/자산관리 위험 중 소득유입시기와 가계에 유입되는 소득의 크기는 비교적 일정한 편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일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저축이 불충분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이 '그저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중간값인 3.42로 나타났

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친구나 친척보다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소 응답자 가계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일정수준의 신용을 쌓아놓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인지된 재무위험 수준

인지된 위험 유형	위험 측정 하위 항목	평균	S.D.	총 평균
소득/자산관련 위험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가 매달 규칙적이지 않다	1.77	1.15	2.17
	매달 집에 들어오는 소득액수가 일정하지 않다	2.00	1.14	
	만일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	3.42	1.11	
고용관련 위험	앞으로 가장이 정년퇴직 전에 실직할 위험이 있다	3.91	1.17	3.64
	가장이 실직하면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3.37	1.22	
신용관련 위험	만일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이다	2.15	1.03	2.43
	만일의 경우 돈을 빌릴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	2.71	1.16	

3.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 인지수준과 보험료 지출액

가계특성과 인지된 재무위험, 보험료 지출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세 유형의 재무위험과 보험료지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4차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4>. 분석결과 인지된 재무위험수준은 가계특성 중 위험대비수준 관련변수보다 위험요소 관련변수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된 재무위험 수준은 재무위험 유형별로 관계가 있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득/자산관련 위험과 고용관련 위험은 취업주부 가계보다 비취업주부 가계에서 높았고 신용관련 위험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응답자 교육수준은 세 재무위험 수준에 모두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들은 세 유형의 가계 재무위험 수준을 낮게 인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계의 위험대비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가계 소득과 추가계자산은 신용위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지된 재무위험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위험의 경우에만 응답자들이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신용위험이 감소한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소득이 안정된 직업을 반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잦은 금융거래를 통해 이미 금융기관이나 주변 사람들과 신용을 쌓아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소득/자산관련 위험과 고용관련 위험, 그리고 신용관련 위험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델의 R²는 각각 .12, .08, .09였다.

가계의 보험료 지출액에 대한 재무위험 관련변수와 위험대비수준 관련변수와의 관계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보험료

를 전혀 지출하지 않고 있는 가계가 전체 응답자의 5.4%인 32 가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보험가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험료 지출액만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험료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델에서 위험요소 관련변수와 위험대비수준 관련변수는 보험료 지출액 분산의 14%를 설명하고 있다.

<표 4> 가계특성, 인지된 재무위험, 보험료 지출액과의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소득/자산관련 위험		고용관련 위험		신용관련 위험		보험료 지출액	
	b	t	b	t	b	t	b	t
자녀수	.05	.41	-.01	.61	-.15	-1.39	2.02	2.75*
결혼지속연수	-.06	-2.86*	-.01	1.76	-.03	-2.56*	.25	1.66
주부취업유무	-.80	-3.35*	-.53	-3.09*	.09	.50	1.07	.66
응답자교육수준	-.35	-3.28*	-.26	-3.88*	-.16	-2.84*	-1.20	-2.88*
가계소득	.00	1.21	.00	1.11	-.002	-3.21*	.02	3.61*
가계자산	.00	.90	-.00	-1.03	-.00	-1.09	-.00	-.94
소득/자산관련 위험							-.20	-.67
고용관련 위험							-.34	-.85
신용관련 위험							.69	2.08*
R ²	.12		.08		.09		.14	
F	7.58		6.02		6.36		8.03	

*: p < .05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험료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지속연수와 주부취업여부 및 추가계 자산은 보험료 지출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신용관련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지출액이 증가하나 소득/자산관련 위험과 고용관련 위험은 보험료 지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계특성, 즉 가계의 위험요소 관련변수와 위험대비수준 관련변수, 인지된 재무위험, 보험료 지출액과의 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녀수와 가계소득이 인지된 재무위험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보험료 지출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결혼지속연수와 주부취업유무는 인지된 재무위험과 대체로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인지된 재무위험 수준을 통제했을 때 보험료 지출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위험과 보험료 지출액간의 관계를 규정한 가설 3의 경우도 세 가지 변수 중 신용관련 변수 하나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 결과는 가계의 보험료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위험 가능성과 재무위험 인지수준 외에 또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던 요인들에 대한 검토도 더 정교화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수가 많을수록 인지된 재무위험 수준이 높지는 않았으나 보험료 지출액은 많았는데 이는 가계가 본고에서 측정한 유형의 재무위험, 즉 소득이나 고용, 신용관련 위험보다 가구주나 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 등과 관련된 위험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응답자 교육수준은 모든 재무위험 수준과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고 보험료 지출액과도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는 생명보험성향조사 결과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보험가입률이 높았던 것과 상반된다. 이는 보험가입률과 보험료 지출액이 정확하게 같은 변수가 아니어서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 주부 취업여부 등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는데 비해 생명보험협회 조사에서는 어떤 변수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계소득 등 회귀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교육수준이 높으면 인지된 재무위험 수준도 낮고 따라서 보험구매에 비용을 덜 지출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계특성을 위험요소 관련변수와 위험대비수준 관련변수의 두 차원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주부가 인지하는 재무위험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위험요소 관련변수와 위험대비수준 관련변수 및 주부가 인지한 재무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 지출액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계특성은 위험요소 관련변수와 위험대비수준 관련변수로 나누고 인지된 재무위험은 소득/자산관련 위험, 고용관련 위험, 신용관련 위험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위해 598명의 주부들로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개의 예외는 있으나 가계가 유사시 예측하는 자금의 수요가 클수록, 경제적 대비가 안 되어 있을수록 주부가 인지하는 재무위험이 크고 따라서 보험료 지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이 대체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요소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간주되는 자녀수는 보험료 지출액과는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인지된 재무위험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또한 위험대비수준 관련변수들 중 추가재산도 인지된 재무위험 수준이나 보험료 지출액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보험료 지출행동이 가계가 인지한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위험의 크기, 위험대비수준, 그리고 인지한 위험수준의 함수라는 기존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소비자의 보험가입 또는 보험료 지출에 대한 기존 이론이 좀 더 많은 검증들을 통해 보완되고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완전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또 설명력도 10% 내외에 불과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의 보험은 유사시에만 도움이 되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조사(2001)에서 저축성이 강조된 상품의 판매가 1997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 이후 반대로 노후보장수단으로서의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나 절세 수단으로서의 보험의 가치가 증가하였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보험은 저축이나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소득층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고 따라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지출은 가계가 인지한 재무위험 수준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위험 척도의 타당성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 가계 재무위험의 하위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측정하려 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재무위험을 소득/자산관련 위험, 고용관련 위험, 신용관련 위험으로 정의하였으나 자녀수가 재무위험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아 가계가 인식하고 있는 재무위험의 정의를 더욱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건강상태나 직업유형 등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소가 궁극적으로 소득이 중단될 위험이라는 점에서 고용관련 위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차후 연구에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소득중단의 위험을 실업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는 별개의 위험 요소로 취급 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주부가 인지한 재무위험이 가계의 보험료 지출행동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거나 주부가 인지한 재무위험보다 위험회피/수용성향이 더 적절한 변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상생활을 위한 제품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는 아직도 남성 가구주의 참여율이 높다. 따라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지출에 관한 결정은 주부가 인지하는 재무위험 수준보다는 가구주가 느끼는 위험수준이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인지한 재무위험 수준이 같아도 사람마다 다른 위험회피/수용성향이 보험료 지출행동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부 외에 가구주가 느끼는 위험의 유형과 위험수준에 대한 측정 및 위험회피/수용성향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가계재무관리 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험사는 자녀수가 많고 비교적 결혼초기이며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은 높은 가계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계가 느끼는 재무위험 유형에 따라 그 위험에 대한 불안해결 방안을 보장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계가 소득/자산관련 위험이나 신용관련 위험보다 고

용관련 위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이나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아 신용위험을 높게 인지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계관리자가 해당 가계의 재무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을 선택하고 필요한 보험을 구입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고용관련 위험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 위험 인식과 보험료 지출액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불안정에 대비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관련 위험은 상당부분 가계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위험이므로 이런 위험을 보험이나 기타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3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1월 21일

【참 고 문 헌】

- 고양근(2003). 생명보험의 보장성과 복지성. 월간생명보험, 2003년 4월호, 1-3.
- 김경자(2002). 우리나라 가계의 생명보험료 지출실태와 그 영향 요인. 대한가정학회 제 55차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성민·길재욱·김현수(1999). 생활재무관리. 경문사.
- 김억현(1999). 보험의 이론과 실제, 대학문화.
- 생명보험협회(2001). 생명보험성향조사 2000.
- 안승철정영숙배미경(2002). 新투자자와 보험. 신정.
- 양인애(1994). 가계위험관리에 대한 소고. 보험학회지, 43, 341-363.
- 이희춘(2003). 보험상품의 경쟁력 제고방안 검토. 보험개발원 전문가 칼럼. www.kidi.or.kr/kc/column
- 정중영(2003). 보험트렌드의 변화추이와 손보업계 대응방안. 월간손해보험, 2003년 9월호.
- 정홍주(1996). 알기쉬운 보험상식. 21세기 북스.
- Bajtelsmit, V. & Bernas, A.(1996). Why do women invest differently than me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0.
- Cordell, D. M. (1996). *Fundamentals of financial planning*. The American College.
- Fitzsimmons, V. (1989). Wife's role in monthly insurance expenditure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3), 249-261.
- Garman, E. T. & Fogue, R.E. (1994). *Personal finance*. Houghton Mifflin Company.
- Grable, J. E. & Lytton, R. H. (1998). Investor risk tolerance: testing the efficacy of demographics as differentiating and classifying facto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1), 21-31.
- Sung, J. & Hanna, S.(1996). Factors related to risk toleranc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1), 11-20.
- Xiao, J. J.(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1), 21-30.